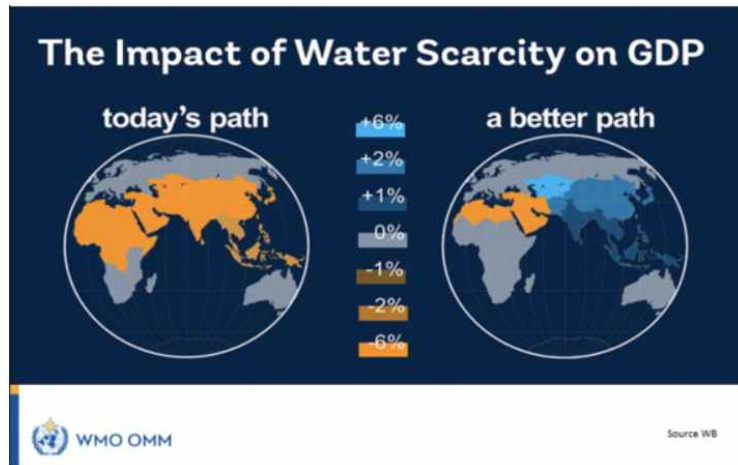




물-기후 연합 실현

(2020.07.03.자 WMO 기사)

*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

기후변화는 물의 가용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 지구촌이 겪고 있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. 기후와 관련된 우리의 물 행동이 물의 가용성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열쇠이다.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속가능발전목표 6¹⁾을 이행하는 것이며, 건강한 환경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다.

WMO는 7월2일에 영상으로 외교 브리핑을 개최하여 물과 기후의 연합에 관한 제반 계획을 발표하였다. 취지는 **국가 · 지역 · 지구 차원의 굳건한 활동 전개를 통해 물과 기후 행동의 모멘텀을 구축**하기 위한 것으로, UN 파트너들, 회원국, 원조국 정부, 민간부문, 비정부기구, 금융기관 등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되었다.

WMO 사무총장 탈라스 박사는 브리핑에서 “기후변화의 영향은 물과 연관된 여러 현상들을 통해 감지된다. 즉 홍수, 가뭄, 연안침수, 빙하 녹음, 산불 등의 양상을 통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. 이런 의미에서 재해위험경감, 기후 적응, 기후 복원력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” 고 주장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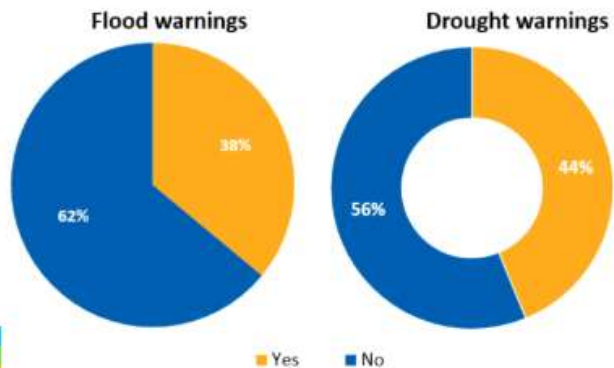
“물 스트레스는 전 지구적 문제이다.” 라고 그는 말한다. 물 스트레스는 경제, 보건,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고 전세계 GDP 전반에 암울한 전망을 가져다주고 있다. 식량불안과 기근 문제가 또 다시 커지고 있다. 인구는 느는데 기후변화 문제까지 안게 되면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가 늘게 될 것이다. 특히 중동, 아프리카, 아시아 국가들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다.

1) 깨끗한 식수 확보 및 공중위생 보장

WMO는 홍수 및 가뭄 감시체계 강화 그리고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문데이터 및 정보 교환 증진에 전력을 쏟고 있다.

브리핑은 UN환경계획, UNESCO, UN-Water, 핀란드·독일·타지키스탄 UN 대표부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, 일주일 후인 7월9일자로 UN-Water SDG 6 Global Acceleration Framework이 발족한다.

Flood and drought services still limited



“세계는 ‘물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’를 2030년까지 달성키로 한 진로에서 벗어나 있다.”고 UN-Water 의장이자 국제농업개발기금 의장인 Gilbert F. Houngbo는 말한다. 그는 지금의 세계적 유행병 코로나 19는 전 세계 수많은 인구가 물 심지어는 손 씻을 물마저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덧붙였다.

“가뭄은 허약을 동반하여 여행하는 것 같다.”라고 UNEP 사무총장 Inger Anderson은 묘사한다. 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미래에는 전 세계 18세 미만의 아이 4명중 1명 또는 6억 명 가량이 극심한 물 스트레스를 겪는 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.

“물은 그저 SDG 6만이 아닌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들 전체에서 가장 중심부 있다”고 UNESCO의 자연과학담당 사무차장보 Shamila Nair-Bedouelle는 말한다. SDG6를 가속시키면 사회 모든 부문에 복합적 편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.